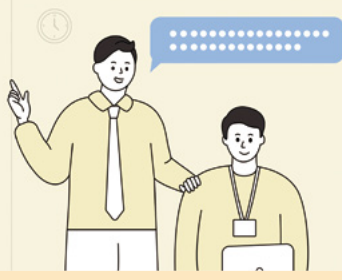


말 많은 선배 VS 말 없는 후배

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대화는 필수지만,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한 법. 잔소리가 너~무 많아 피곤한 선배, 말이 너~무 없어 답답한 후배.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?

잔소리가 너무 많은 선배 VS 말이 너무 없는 후배

VS

잔소리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. 배울 점이 있고, 대화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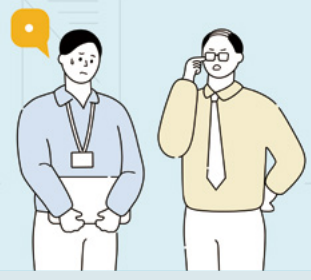
잔소리가 많은 만큼 신경 써주고 잘 챙겨 주셨던 선배가 있었어요. 처음엔 싫었는데 겪어보니 감사한 점이 많았어요.

잔소리가 많아도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보다는 나아요.

잔소리도 관심이고 사랑입니다.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죠. 저에게 관심 없는 조용한 후배보다 듣기 싫어도 관심 가져주는 잔소리 선배가 좋습니다.

잔소리를 잘 걸러서 들으면 유용하지만, 말이 너무 없으면 상호작용에 의한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.

잔소리도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!



말이 없는 후배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지만, 잔소리가 너무 많은 선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.

향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후배는 피드백을 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, 선배에게는 말 조차 꺼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잔소리가 많은 선배는 스트레스!
말이 없는 후배는 최소한 스트레스는 주지 않죠.
내가 먼저 말 걸게요, 후배님!

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이지요.

말 많아서 무엇 하나요.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되지요.

선후배를 떠나 서로 말을 아끼면서 배려할 때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.

세대차이 극복 TIP

영화 <인턴> 속 세대차이 극복



주인공 줄스는 30대의 성공한 패션회사 CEO로 일 중독이라 불릴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. 벤은 전화번호부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줄리의 회사에 인턴으로 재취업한 70대 노인이다. 살아온 시간도, 시대도 다른 두 사람은 패션부터 성격, 식습관,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까지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다. 같은 업무를 두고도 처리 방식이 달라 끊임없이 부딪히던 줄스와 벤은 어떻게 좋은 동료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? 벤은 한 회사의 임원까지 지낸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서 굵은 일을 도맡아 한다. 서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것. 일 밖에 모르던 줄스 역시 벤을 만나고 난 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된다.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신뢰와 공감을 쌓는 모습에서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다.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어도,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관계와 나이는 문제될 게 없다. 영화 <인턴>을 통해 올바른 소통, 타인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다 더 나은 직장생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.